SV Times

2018년 6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SV Times 03호

1. Essay

**야구로 받은 사랑, 야구로 돌려드릴게요**

글 : 이만구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前 SK 와이번스 감독)

문득 2007년 SK 와이번스 시절, 야구 팬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팬티 퍼포먼스’가 떠오른다. ‘홈경기에 만원 관중이 들어서면 속옷 차림으로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게 TV 전파도 타고 신문에도 나오는 등 스케일이 커졌다. 야속하게도(?) 2년 동안 빈자리가 많았던 홈경기는 만석을 이뤘고, 약속대로 나는 원숭이 팬티 바람으로 그라운드를 돌았다. 창피할 거 같았는데 3만 3천여 명 관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팬들과 선수가 함께 소통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다. 돌이켜보면 그간 나의 야구 인생에는 팬, 대중과 함께한 순간들이 많았다.

1984년 프로야구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순간부터 ‘헐크’, ‘괴력의 장타맨’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던 현역 시절에도 뜨거운 성원이 존재했다. 이렇게 야구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야구’였다.

<헐크의 인생2막 ‘야구 전도사’>

재능 기부는 현역 시절부터 생각해 왔던 일이다. 팬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며 가진 재능을 환원하겠다고 결심했었다. 2016년 야구나눔재단 ’헐크파운데이션’을 설립해 야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전국 초중고, 사회인 야구팀을 찾아가 훈련을 지도하거나 유소년 야구클럽 등에 피칭 머신을 기부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라오스 최초 야구단 ‘라오J브라더스’는 특히 남다르다.

라오J브라더스는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게 해주려고 만들었다. 선수 대부분은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다. 감독 재직 시절 라오스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야구 용품 지원을 시작하며 라오스와 인연을 맺었다. 처음엔 야구 인프라는 물론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마저 전무해 막막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실내 연습장, 기숙사 등이 설치된 야구센터를 지어 고아, 이혼 가정, 극빈층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쳤고 의식주와 교육비도 지원했다.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은 결실도 맺고 있다. 아이들은 야구의 규칙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며 눈에 띄게 성장했고, 야구를 전혀 몰랐던 라오스 국민들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제법 높아졌다. 현재 라오스 국가대표 팀은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출전을 준비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진) 라오J브라더스

(사진) 이만수 이사장과 라오스 청소년

(사진) 이만수 이사장과 라오J브라더스

<재능기부는 나의 기뿜>

재능 기부는 기쁨의 활동이다. 내 강연을 들었거나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을 때 정말 행복하다. 특히 그들이 나를 본받아 나중에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다. 지금은 사랑받았던 만큼 야구인들을 위해 더 봉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었지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난 70살이 되더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내 마지막 꿈은 라오스 야구장에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국제 대회를 여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지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70살이 되더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내 것을 덜어내 남을 채워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안다. 나눈다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또 다른 채움이다. 선수시절, 감독시절, 지금까지 다 통틀어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씨앗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사진) 태안군 리틀야구단 재능기부

(사진) 세광고 재능기부

약력

-現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

-現 라오J브라더스 구단주

-現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

-現 KBO 육성위원회 부위원장

-前 SK 와이번스 감독(2011~2014)

수상

-2018. 라오스 대통령 훈장

-2017. 대한민국 법무부 감사패

-2016. 라오스 총리 훈장

2. 소셜 현장 ‘S’가 간다

**S의 특별한 휴가, 행복마을의 비밀**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여름 어디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신가요? 산? 바다? 해외? 이번에 저 S가 특별한 휴가지를 다녀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체증도, 바가지 요금도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마을! 바로 ‘행복마을’입니다. 과연 행복마을엔 무엇이 있었는지 제 여행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제1장 뻔한 여행지는 싫다~ 미션이 가득한 그곳, 행복마을>

지난해 장거리 휴가로 고생이 컸던 만큼 이번 휴가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지로 떠나기 위해 열심히 검색 또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눈에 들어온 한 마을! 바로 행.복.마.을.이었습니다.

#가깝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곳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는 곳

#공정여행처럼 뜻 깊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

#행복한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림) S의 특별한 휴가 MAP

행복마을은 사회공헌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에서 일상 속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전개 중인 캠페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이, 맑음이, 희망이와 같은 아이들인데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36개 기업이 시민과 함께 아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선물하기 위해 행복마을에서 뭉쳤습니다!

-맑음이 : 2차 성장을 맞아 위생용품 필요

-나눔이 : 결식으로 인해 균형 있는 영양 관리 필요

-희망이 : 자유로운 이동 수단 필요

<제2장 행복한 광장 or 행복한 호수! S의 선택은?>

(사진 좌) 광화문 청계광장의 행복마을

운영기간 : 6월 10일~13일

특징 : 명동, 종각과 인접한 도심지를 여행하며 나눔 실천

(사진 후) 잠실 석촌호수의 행복마을

운영기간 : 6월 15일~22일

특징 :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힐링하며 나눔 실천

행복마을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청계광장과 잠실 석촌호수,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좀 더 가까운 청계광장 행복마을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박스 모양 조형물을 비롯해 작은 종이상자를 들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등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가득했는데요, 하나씩 탐험해 봤죠.

<행복광장 탐방 코스>

-제1코스:자이언트 행복상자

거대한 행복상자 속으로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인터렉티브 월이 저를 반겼어요. 화이트, 오렌지, 핑크, 스카이 블루, 그린 5가지 컬러로 꾸며진 인터렉티브 월은 제가 이동할 때마다 움직임을 따라 색이 바뀌었답니다.

(사진) 자이언트 행복상자

상자 내부의 양측 벽에는 행복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활동, 행복마을의 설립 취지 등이 예쁜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되어 있었어요. 지난 2년 간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 ‘ 행복을 잇는 징검다리’, ‘행복얼라이언스 파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나눔을 실천해왔어요.

-제2코스:나만의 행복상자 공방

행복한 광장 두 번째 여행 코스는 ‘나만의 행복상자 공방’입니다. 맑음이, 나눔이, 희망이와 같은 아이들 중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각각의 아이들을 응원하는 상자를 선택, 조립해서 행복상자에 담으면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상자의 개수만큼 도시락을 기부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저는 나눔이, 맑음이, 희망이 모두를 응원하며 행복상자를 만들어보았어요.

(사진) 행복상자를 만드는 시민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행복상자들은 행복마을 끝에 위치한 거대한 행복상자 속에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성스레 만든 행복상자가 하나씩 모여 이 상자 속을 가득 채우면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제3장 행복마을에 다녀간 사람들>

저와 같이 행복한 휴가를 보낸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두구두구두구~

“무려 6만여 명!!!!”

No.1 행복마을(청계광장&석촌호수) 방문자 총 4만 명 → 결식 아동 대상 식품 안전과 균형있는 영양을 책임지는 행복도시락 4만 개 기부 (연내)

No.2 온라인 행복상자 만들기 총 2만 명 →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 16개 상품을 담은 행복상자 2천개 기부

6월10일부터 22일까지 약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마을을 방문해 행복박스를 채워주었습니다. 행복마을 방문자는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매칭그랜트\*로 4만 개 도시락을 기부하게 되었어요!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청계천이나 석촌호수에 나들이를 나왔다가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죠.

행복마을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난 5월 온라인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벤트 참여자 10명이 모이면 행복상자 1개 기부되었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6월 22일에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가 모여 맑음이, 나눔이, 희망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전달할 2천 개 행복상자를 포장하기도 했고요.

행복얼라이언스는 앞으로도 참여 멤버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일상 속 기부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저 S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매칭크랜트(Matchinf) : 기부자가 내는 기부금만큼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마을에서는 시민들의 이벤트 참여 횟수와 매칭해 아동들에게 도시락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기부활동으로 활용되었다.

행복얼라이언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숨어있는 SV를 찾다

**봉사활동 분야 VS 사회변화 분야 : 청년 사회변화 프로그램 최강자는?**

SUNNY는 지난 15년 간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적 모델 발굴 및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통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동 학교폭력, 어르신 소외, 장애인 차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회변화 프로젝트’가 SUNNY 활동의 큰 두 축입니다. 과연 둘 중 어떤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임팩트를 가지고 올까요?

2개 대표 사례를 통해 청년 사회변화 프로그램 최강자를 확인해보시죠!

<봉사활동 프로그램 – 어르신들과 소중한 추억을 되새깁니다. ‘행복한 여생’>

봉사활동이 먼저 등판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없는 행복한 어르신’은 1 ∙ 3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세대 격차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행복한 여생’ 프로그램은 함께 감성적인 공예 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이 살아 오신 삶을 공유하면 써니(SUNNY 활동자 지칭)들은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데요. ‘행복한 여생’ 프로그램, SUNNY 중원팀의 활동 발자취를 슬라이드를 넘기며 따라가 봅시다.

(슬라이드 - 사진)

1주차 –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80년대 대학생 미팅에 있었다는 전설의 ‘소지품 뽑기’로 8주간 함께할 짝궁을 정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8주 동안 함께할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애교가 넘쳐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2주차 – 꽃띠 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ㄱㅏ고 ㅅㅣㅍ어요

마침 벚꽃 시즌, 화사한 꽃머리띠 만들기를 하며 봄 분위기에 취해보았답니다. 젊은 써니나 어르신들에게나 꽃은 사랑스러우니까요.

3주차 –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봄의 절정기였던 3주차에는 다 함께 봄소풍을 나갔습니다. 꽃잎 흩날리는 나무 아래 앉아 어르신들은 써니들에게 ‘착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시를 낭독하며, 젊은 써니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셨죠.

4주차 – 건강이 최고예요!

컬러비즈를 활용해, 십자가, 네모 등의 작품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창의력, 집중력,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은 초집중 모드로 작품을 제작하셨죠.

5주차 – 추억을 담는 상자

에쁜 꽃무늬 장식을 한 원형 보석함을 만들어보았어요. 평생 가족들을 돌보던 손길로 조심스레 만든 예쁜 보석함에는 어르신들의 추억이 가득하겠죠?

6주차 – 힘들었던 시간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 곡선 만들기, 공부를 못해본 아쉬움, 힘들었던 시집살이와 셋방살이, 부모님을 여읜 상실감이 있었던 반면, 따님을 결혼 시켰던 기쁨, 손주들 탄생, 또 늦게나마 복지관에서 공부하는 즐거움까지, 어르신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되짚으며 행복했지만 고단했던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여생을 그려보겠죠.

7주차 – 화분을 가꾸듯 남은 인생도 값지게 만들어나가요

유해물질흡수, 냄새제거, 실내소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스칸디아모스 화분을 만들어보았어요. 써니-짝궁 어르신이 나오는 스티커 사진을 화분에 붙이고 짝궁 써니와의 추억을 간직해주시겠죠?

봄바람이 수줍게 살랑거렸던 4월 9일부터 여름이 성큼 다가온 5월 28일까지… 길다면 길지만 써니들(SUNNY 활동자 지칭)과 어르신들이 세대를 넘어 우정을 나누기에는 아쉽기만 했다고 합니다. 웃음과 즐거움,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동의 눈물이 뒤섞인 시간들 속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이 그 고단했던 손끝으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써니들과 함께 만들며 도란도란 삶을 나누는 순간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활동 기간 동안 느낀 바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 간 의미 있는 시간이 끝난다는 아쉬움과 서로에 대한 감사함에 마지막 활동 시간은 온통 눈물 바다였지만 써니들은 어르신들께 건강과 행복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어르신들은 써니들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소감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에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졌던 시간들이었어요. 친구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도 잘하고 좋은 짝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해요. 지나고 보니 짧은 시간이 너무나 아쉽지만 좋은 추억이었고 행복했어요.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중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처음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죠. 그런데 저희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께 얻어가는 게 더 많았어요. 손주처럼 챙겨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치 열 다섯 분의 할머니가 생긴 기분이에요. 저희에게 주신 따뜻한 마음, 함께했던 매 순간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SUNNY ‘행복한 여생’ 중원팀

<사회변화 프로젝트 – 마음 사이를 연결하고 치유합니다 ‘우-울(우리의 우울)’>

SUNNY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맞서는 대항마는 바로 사회변화 프로젝트입니다! SUNNY 사회변화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조금 더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기존 영리 시장에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것과는 달리 대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제품이나 서비스, 사회 인식 변화 등으로 나타나며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SUNNY 솔루션 프로세스 툴킷’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사진) 써니 워크숍

지난 3월 교육워크숍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총 330여명의 써니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66개의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주거난부터 우울, 건강 등 다양한 이슈에 맞추어 각양각색의 해결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올 6월까지 여러 번 피봇\* 과정을 거쳐 7월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8월~10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1월~12월에는 활동 결과에 따른 사회 변화 정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 중 수원/경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울'팀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디어 발전 단계를 아래 슬라이드를 넘기며 살펴봅니다.

\* 피봇(Pivot): 창업 기업이 초창기에 세웠던 목표를 바꿔야 할 때 사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것

(슬라이드 – 이미지)

1. 이슈 ISSUE – 대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울팀은 그 중 청년 우울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소 방안이 부족하며,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해 병원을 찾는 젊은 층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ISSUE 1. 청년 우울 증가

최근 5년(2012년~2016년) 사이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은 26.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ISSUE 2. 부정적 인식

우울감을 인지하더라도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있다.

-ISSUE 3. 해소 방안 부족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 생활 상담 센터를 찾더라도 부족한 심리 상담원 수와 상담 시간은 여전히 문제이다.

2. 분석 ANALYSIS.

우-울팀은 대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제를 직접 겪고 있을 만한 가상의 인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20대 여대생 수지 이야기

•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22살 수지는 최근 인간관계와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

• 하지만 그 고민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털어놓기 어렵고, 그렇다고 병원에 가자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 어디에 고민을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키우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접근 APPROACH.

우-울팀은 풀어야 할 문제 해결 대상 설정 후, 솔루션을 찾기 위한 접근법을 고민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을 대체하거나, 둘러싼 환경을 바꿔보거나, 문제를 결합하거나 나누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연결’이라는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픽)

대학교 심리상담센터 – 우-울팀 혁신 모델 – 심리상담 주요학생 – 심리상담 전공학생

마땅한 상담 기관을 찾지 못해 우울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학 생활 상담 센터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연결

4. 수단 METHOD

전문적인 상담 프로세스가 적용되면서 대학생들에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한 열쇠였죠.

- 상담 서비스 : 우-울팀이 개발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어두워서 좋은 지금’ 대학교 심리상담 센터 내 어두운 공간을 마련해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또래에게 상담을 받음으로써 공감과 친밀감을 배가시킴

- 모델 확산 : 주변 대학으로 프로젝트 확산 및 상담 결과와 노하우를 정리한 지침서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

5. 자원 RESOURCE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팀은 총 5가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력

• 상담 프로그램 개발자: 전공자 수준

• 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단순 기술(기초적 상담 지식, 상담 윤리, 공감능력)

-소요시간: 총 7개월

• 프로그램 수요(대학생활상담센터, 상담 봉사자, 참여자 등) 조사: 1개월

• 프로그램 개발: 1개월

• 프로토타입 실행: 1개월

• 프로그램 실제 운영 : 2개월

• 시스템 정착 유도 및 우울증 극복을 위한 지침서 출판: 2개월

-인력: 우-울팀 5명 + α(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상담학과/교육학과 봉사자 등)

-씨앗자금:총 150만원

• 상담사 롤모델 체험비 = 7.5만원 (1.5만원x5)

• 프로그램 운영비(대관료, 홍보료 등) = 35만원

• 우울 지침서 출판비(크라우드 펀딩) = 목표금액 100만원

6. 전략 STRATEGY

자, 이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문제 해결 방법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요.

- 크라우드소싱 : 우울증 극복을 위한 지침서 출판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씨앗머니 마련

-매시업\* : ‘어둠 속의 대화’ · ‘인사동 다크룸’ 등 인기있는 체험형 활동 시스템을 차용해 대학생활 상담센터 상담 서비스와 혼합

\*매시업(Mash Up): 서로 다른 콘텐츠를 조합해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의미

-게임화: 기존 상담 절차에 ‘극’ 요소를 도입하여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행동과 참여를 유도

7. 파트너 PARTNET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구상한 전략과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업 파트너를 찾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대학 – 우-울 팀 – 대학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한 대학에 성공적으로 정착 후 이식이 가능한 대학을 찾아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변화를 이끌어나감

우-울팀을 비롯한 66개 SUNNY 사회변화 프로젝트 팀은 위의 단계들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프로젝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혁신 모델들이 대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나아가 지속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면 대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SUNNY, 봉사활동부터 사회변화 프로젝트까지 진화, 발전을 거듭하다>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사회변화 프로젝트. 모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써니들이 끊임없이 고민 한 결과이며, 어느 것 하나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직접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 기획, 프로토타이핑 과정 및 협력 파트너 섭외까지 탄탄하게 실행하며, 나름의 기준으로 사회에 얼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STEP1 – 청년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주제 아이템을 도출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구상

STEP2 – 팀원들과 함께 역할을 정하고 협업 파트너를 연계하며 파일럿(프로토 타입) 실행

STEP3 – 협업과 실행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대, 확산하며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

이처럼 SUNNY와 함께했던 써니들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리더로 성장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나갈 다양한 사회변화를 기대합니다.

SUNNY 홈페이지 바로가기

4. Trend & Review

**Trend & Review, AVPN & 상하이포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AVPN 컨퍼런스 및 상하이 포럼에 방문한 행복나눔재단 김지선 매니저와 행복나래 김선욱 매니저의 견문록을 통해 그곳에서 논의되었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AVPN 컨퍼런스(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행복나눔재단 SE육성팀 김지선 매니저

이번 AVPN에 참석한 행복나눔재단 SE육성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혈 워킹맘입니다.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재단에서 근무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글로벌한 시각을 기르고자 AVPN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heck Point!

행복나눔재단은 무슨 역할로 참여했을까?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투자는 어떤것일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Deal Share는 어디였을까?

<6월 4일, ‘재단의 임팩트 투자 현황’>

올해 초 AVPN과 일본 사사가와 평화(Sasakawa Peace)재단은 아시아 및 미주 8개 지역 소재 재단의 임팩트 우호 자본 공급 및 생태계 조성 활동에 대한 공동 연구(Leveraging the full spectrum of philanthropic capital towards impact - Case Studies from Asia Pacific and the US) 결과를 자료로 발간했습니다. 임팩트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사업 경과 등 행복나눔재단 사례도 여기에 실렸는데요. 세션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자 연구자와 함께 질의 응답 및 관계자 패널 토론이 진행됐어요.

임팩트 비즈니스 역사가 비교적 길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는 선진 시장의 경우, 보다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임팩트 투자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 또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에서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프라 조성 등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의 급격한 팽창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통해 연간 20%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나라다(Narada) 재단 성과 내용이 인상적(bold)이었습니다.

<6월 5일, ‘젠더 관점 투자’>

젠더 관점 투자는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며, AVPN에서도 역시 다뤄졌는데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와 수입 측면에서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경제 개발 수준 및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 세션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재단과 투자기관 등이 여성의 동등한 제도권 경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영역 사업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소셜벤처 공모전 등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남성 심사위원들과 다른 시각을 발견하는 경험을 종종 했는데요. 여성의 사회 참여, 경영 및 투자 의사 결정에의 참여가 실제 여성에 대한 기회의 평등 외에도 사업 및 투자의 성공, 나아가 사회 발전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이와 유사한 경험을 여성 및 남성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과 나누는 자리여서 의미 있었습니다.

<6월 5일 ‘지속가능한 투자와 임팩트’>

이날 기억에 남는 세션은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재무적 투자 및 임팩트 투자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론을 다뤘습니다. 다양한 자금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사회적 투자 금융 외에도 주류 금융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어요. ‘임팩트 투자는 위험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투자상품 설계, 투자 목적에 맞는 성과 제시(임팩트 측정수단 필요), 투자 및 사업 관련 시스템, 프로세스 투명성 확보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6일, ‘Deal Share Live’>

‘딜 셰어 라이브(Deal Share Live)’란 행복나눔재단과 같은 AVPN 회원기관이 추천하는 교육•헬스케어 분야 15개 소셜벤처가 사업에 대해 피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참여 기업에 관심 있는 투자기관은 회사 소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개 기업은 전체 컨퍼런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5분 동안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피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여한 벤처 중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아 최종 top3에 선정된 곳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소개합니다.

바라캇 번들(Barakat Bundle) - ‘바라캇 번들’은 남아시아 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조기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 패키지를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바라캇’은 아랍어로 축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패키지에는 각종 신생아 용품과 비상 의료용품,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 캘린더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직접 수혜 집단뿐만 아니라 인도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패키지 생산을 맡겨 일자리 제공 및 소득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속가능성과 제품 경쟁력에 대한 공격를 받긴 했으나, 인도 내 생산 안전성 인증을 받은 자연친화 프리미엄 요람을 북미에 수출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업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AVPN 참여 후

재단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각각의 사회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경제개발 수준 및 문화적 지리적 차이에 따른 더 넓은 범위의 사회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섹터 활동가들과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나누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혁신과 임팩트 사업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이 문제 들의 해결을 견인할 임팩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곱씹어볼 수 있었죠.

<여기는 중국, 상하이 포럼 (Asia’s Responsibilities in a World of Change)>

행복나래 SE혁신기획팀 김선욱 매니저

상하이 포럼에 다녀온 김선욱 매니저는 대학시절,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리더그룹으로 활동하며, 보다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행복나래 SE혁신기획팀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변화하는 세상에서 아시아의 책임’을 주제로 한 상하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상하이포럼은 SK그룹이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지난 2005년부터 푸단대학과 함께 주최하는 경제부문 국제학술포럼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언론의 대표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날의 ‘상하이국제컨벤션센터’로 떠나보겠습니다.

상하이국제컨벤션센터와 복단대학에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18 상하이 포럼에는 쟈오양 푸단대 당서기,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왕신퀘이 상하이WTO사무자문센터 총재, 도널드 카베루카 전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그래엄 앨리슨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 등 글로벌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 주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아시아의 책임(Asia’s Responsibilities in a World of Change)’이었습니다.

Check Point!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 세계 흐름은 어떠한가?

중국이 주요하게 다루는 사회이슈는 무엇일까?

<5월 26일, 사회적 가치 경영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부족함이 없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최태원 SK회장의 축사로 포럼의 막이 열렸습니다. 저는 특히,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의 저자인 그래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의 강의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쟁은 이익관계에 따른 힘의 논리라고 보기 쉽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을 위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5월 27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올해 상하이포럼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예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종일일정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사회적기업 세션에 참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푸단대학 10층 강의실로 향했음에도 이미 그 곳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실제 뒷자리에 서서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이 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깊었던 건 ‘한∙중∙일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특징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었습니다. 3개국 정부의 사회에 대한 중점사항이나 제도가 다른 탓에 이질적인 부분도 많이 보였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로컬 연합체 간 교류가 증가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화되는 점 등은 공통적 특성이었습니다. 주요 아젠다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은 행복나래 김태진 사장의 ‘행복 나래 사례’ 발표 시간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Pain-Point에 맞춰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발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발표 이후에 앞다투어 질문을 하고, 세션이 종료된 뒤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28일, 중국 최대 아동 금융 교육 기관을 만나다>

마지막 날에는 사회적기업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했던 글로벌 리더 및 참가자들과 함께 상하이 내 사회적기업 투어를 함께하는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WABC\*, The First Reaction\*, Shanghai Better Education Consulting Center 등 사회적 기업에 방문했는데 이 중 중국이 가진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Shanghai Better Education Consulting Center -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른 자녀가 금융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가정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시 내 저소득 가정이나, 농촌 지역의 어린이가 경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회적기업 Shanghai Better Education Consulting Center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처럼 친근하게 경제관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아동 금융 교육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가 정신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본 보드게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보드게임과 달리, 나눔이나 상생을 실천하려고 노력할수록 승리할 확률에 가까운 방식의 룰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역별 빈부/교육 격차가 큰 중국내 사회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풀어내고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WABC(World of Art Brut’ Culture) : 2010년 상해에서 시작해 현재는 7개 도시로 확산된 예술 비영리기구

\* The First Reaction: 중국 최초로 B Corp 인증. 급증하는 도시 내 응급 상황에서 미숙한 대응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포럼이 끝나고 난 뒤…

포럼도 좋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방문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곳의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며, 국내 사회적 경제 모델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각 국가별 유사 모델의 특장점을 함께 적용하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중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정부나 지역 자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높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보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확대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은 국내 사회적 기업들도 집중해서 고민할 교훈이자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The Social Innovators

1장 : “SK 프로보노를 통해 30년 건설 노하우를 기부합니다! 심명섭 SK 건설 전문위원

사진설명 : 심명섭 SK 건설 전문위원

2장 : 심명섭 전문위원은 늘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지만 막연했습니다.

“우연히 SK 프로보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도시락 북부클러스터 센터 신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SK프로보노 – SK 구성원이 가진 직무 및 관심분야 전문성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업

사진설명 : 심명섭 SK 건설 전문위원

3장 : 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당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생산 규모를 늘리기 위한 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사진설명 : 행복도시락

4장 : 도시락 제조 및 공급에 노하우는 있지만 건물 건축은 생소했던 행복도시락. 심명섭 전문위원은 30년 건설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설명 : 행복도시락 북부클러스터 신축 공정 업무리스트

5장 : 문제 1) 도시락 생산 공장 건물에 최적화 된 기능 필요

해결방안 :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해 품질을 확보하고, 건축물 스펙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계약사항으로 명시 제안

6장 : 문제 2) 건축예정지 인근 다른 공사와 간섭사항 존재

해결방안 : 자재 보관 공간 혼재 등 분쟁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쟁 발생시 필요한 증거 및 자료 확보

7장 : 문제 3) 임박한 도시락 공장 운영 예정일가지 공사 마무리 필요

해결방안 :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공정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시공사와 밀착 협의

8장 : 문제 4) 방수공사 시기와 혹한기가 맞물림에 따라 준공인허가 지연

해결방안 : 소방설비를 완비하여 조건부 준공인허가 유도, 방수공사는 해빙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자문!

9장 : “건물을 지을 때 시공사 선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 추후 문제 소지가 있을만한 사안도 꼼꼼히 챙겨야 하죠. 리스크를 예측하고 손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사진설명 : 심명섭 SK 건설 전문위원

10장 : 이는 심명섭 전문위원에게는 어렵지는 않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 종사했던 큰 규모 플랜트 프로젝트와 3층짜리 도시락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일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진설명 : 플랜트 / 건축

11장 : “설계, 시공, 사양 등 법규와 행정 인허가 업무처리 방법을 다양하게 공부했습니다. 회사 동료,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했죠. 플랜트와 건축은 비록 분야가 다르지만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설명 : 심명섭 SK 건설 전문위원

12장 : 심명섭 전문위원은 SK프로보노 활동에서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종합적 판단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 방문은 물론이고,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업무 이력을 추적했어요. 사안이 있으면 본 업무를 마친 후 바로 미팅을 갖곤 했죠. 책임감을 가질수록 보람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 심명섭 전문위원이 실제 신축 현장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

13장 : SK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삶의 활력소를 찾은 심명섭 전문위원.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활용해 애회 진출하려는 사회적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4장 :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Give’하는 프로보노!!

나눔의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SK 프로보노 사이트 바로가기

6. Social Talk Talk

**ENSI, 2018 포럼 개최**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 : Educator’s Network for Social Innovation)가 ‘대학의 사회혁신 교육의 재발견과 미래’를 주제로 한양대에서 2018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레슬리 패터슨 박사의 ‘퍼블릭 인게이지먼트(Public Engagement)‘ 강의와 함께 사회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회혁신가'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 자본주의 성장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용갑 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셜 벤처 활성화와 인적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기고문에서 확인하세요!

**SK 뉴스쿨, 응원DREAM 프로젝트 실시!**

SK 뉴스쿨이 음악극 ‘태일’에서 졸업생 2명과 함께 응원DREAM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응원DREAM 프로젝트는 문화공헌재단인 우란문화재단의 음악극 <태일>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꿈이 있는 청년을 응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연기간 중 판매하는 MD와 간식BAR 수익금/후원금으로 인터뷰이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사회적 가치 추구가 SK에 주는 의미**

‘SK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측정하는 이유’와 ‘사회적 가치 추구가 SK와 같은 기업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태원 회장이 KAIST MBA 학생들과 함께한 질의응답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행복나래, ‘소셜 리더십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실시**

행복나래가 ‘소셜 리더십 프로그램'을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행합니다.

'역할극(Role Playing)을 기반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대표 및 중간관리자가 사회적 기업 내 다양한 상황을 간접 경험해봄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Event

**The Social Value Times 보고, 선물 받고! 다섯 개 문제풀이에 성공하면 풋케어 쿨링시트가 내 손에!**

이벤트 기간 : 2018년 7월 6일까지

The Social Value Times Vol.03 재미있게 보셨나요? 각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OX퀴즈에 도전하세요. 다섯 개의 문제풀이에 모두 성공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라이온코리아’ 제품 ‘휴족시간 쿨링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여름 휴가철, 분주히 움직일 내 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OX퀴즈 응모 전 주의사항

1) 문제는 'S'가 간다, 숨어있는 SV를 찾다, Essay, the social innovators, Trend&Review관련 내용으로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2) 각 문제당 40초의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3) 한 문제를 틀릴 시 이벤트 응모가 자동 종료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 신중하게 답변을 선택해주세요~!

4) 본 이벤트는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OX퀴즈 도전하기